

# '평화2동 치매안심마을' 본격 운영

### 전주시, 치매환자·가족 안전한 일상생활 위한 현판식 가져... 치매 친화적 공동체 구현 위한 협약도 체결

전주시 평화2동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로 운영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27일 평화2동 신성공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김윤덕 국회의원, 전주시의회 이남숙 복지환경위원회장과 김정명·양영환·최주만 의원, 평화2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2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7일 평화2동 신성공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김윤덕 국회의원, 전주시의회 이남숙 복지환경위원회장과 김정명·양영환·최주만 의원, 평화2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2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을 대상으로 한 이동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신청 △치매보호프로그램 등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지역자원 및 인구현황 조사와 평화2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쳐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주민 요구도 등을 고려해 평화2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신청했다.

그 결과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난 2019년 지정된 평화2동 치매안심마을, 지난해 지정된 진북동 치매안심마을에 이어 지난 2월 24일 전주시 3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마을주민들께서도 우리 이웃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록 기자

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날 현판식에 이어 오는 4월부터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치매안심마을 내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추진하고, 안심마을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과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는 평화2동

# '전주 올해의 책' 4권 최종 선정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 총 6704명 참여

책의 도시 전주시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올 한해 전주 시민과 함께 읽은 '2023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했다.

시는 '2023 전주 올해의 책'으로 △내가 예쁘다고?(황인찬 글·이명에 그림, 북벌) △집고양이 폭지의 우연한 외출(이경옥 저, 북벌) △소리를 보는 소년(김은영 저, 서해문집)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심윤경 저, 사계절) 등 총 4권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23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78권의 도서 중 전주독서대전 실무기획단 선정위원회 의견을 거쳐 총 4부문 12권(어린이(그림)·어린이(글)·청소년·성인) 3권씩의 후보도서를 선정했으며,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과 9개 시립도서관,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서 진행된 시민 선호도 조사에는 온라인 4602명과 오프라인 2102명 등 총 6704명이 참여했다.

먼저 어린이(그림) 부문의 경우 황인찬 시인의 첫 그림책인 '내가 예쁘다고?(황인찬 글·이명에 그림, 북벌)'가 선정됐다. 이 책은 남자아이기 무심코 들은 '예쁘다!'는 말을 계기로 '예쁘다는 게 뭐냐?'를 찾아가는 얘기를 담고 있으며, '예쁨'을 발견해나가는 간질간질한 마음을 시(詩)와 동화처럼 표현한 그림책이다.

어린이(글) 부문의 선정도서는 '집고양이 폭지의 우연한 외출(이경옥 저, 북벌)'로, 집고양이와 길

고양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복잡한 사회 구조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동화책이다.

청소년 부문의 선정도서인 '소리를 보는 소년(김은영 저, 서해문집)'은 주로 어린이책을 통해 독자를 만나 온 김은영 작가의 첫 청소년 소설로, 역사 속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해 풀어낸 작품이다.

끝으로 성인 부문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할머니의 사랑법을 담은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심윤경 저, 사계절)'가 선정됐다. 이 책은 할머니가 남긴 위대한 사랑의 성분을 작가 특유의 정확한 분석과 생생한 복원을 통해 옮겨 놓은 작품이다.

선정된 도서는 올해 △독서리레이 △저자 초청 강연 △100일 필사 △가족 독서 골든벨 등 '2023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시 주제도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0일부터 전주독서대전 누리집(jbook.kr)을 통해 5인 이상이 '전주 올해의 책'을 릴레이로 읽어나가는 독서리레이의 첫 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김병수 시 도서관부장은 "'2023 전주 올해의 책' 선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분들께서 직접 선정한 '전주 올해의 책'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 전주시민 생활 만족도·관심사 조사 나선다

### 4월 11~26일 2010가구 대상 '전북도·전주시 사회조사'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통계청 등록센서스(행정자료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새롭게 표본 추출한 2010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전라북도·전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전주시민들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사회적 인식이나 의식 현황, 관심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삶의 질적 수준 및 사회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전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전라북도

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주지역 134개 조사구의 2010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인력은 약 60명 정도가 투입되며,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 또는 응답자가 조사표에 응답 후 조사원이 나중에 조사표

를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부문별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번 조사는 총 12개 부문 중 △교육 △보건·의료 △주거 △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특성 등 7개 부문, 총 56항목으로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청 권고항목과 행안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시도 표준화 공통항목,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특성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수집된 조사내용에 대한 자체 내용검토 및 분석을 거쳐 올 연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양은경 기자

# 전북경찰청 피해자보호계, 15개 일선 경찰 현장업무지원

전북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북청 피해자보호계 주관으로 도내 15개 일선 경찰서에 대한 현장업무지원을 마쳤다.

27일 전북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 맞춤형 심리적·경제적 지원 방안 △범죄피해평가 및 회복적 경찰활동 등의 내용으로 현장업무지원이 진행됐다.

현장업무지원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질적인 업무 방안 제시와 담

당 직원들의 애로사항 공유를 통해 내 주민족도 향상과 피해자 보호 업무 내실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선용 전북청 피해자보호계장은 "최근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투표소 사고에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을 투입해 피해자보호에 힘썼다"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15개 경찰서 피해자보호 업무 현장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완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해주세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길 27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로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완산구는 최근 완공된 서신플러스 리버하임(서신동)과 신원 리브웰 아파트(삼전2동)가 대상이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5분 이상),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거나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금지 표지판 비치 홍보 △전용구역 확보 방송 일 1회 이상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안내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등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민선8기 공약 실천 위한 매니페스토 교육

전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 실천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나섰다.

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3월 중 청원공감한마당' 행사에서 공약사업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선8기 성공적인 공약실천을 위한 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강사로 초청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제로 △매니페스토의 이해와 중요성 △공약 실천계획의 민중성 확보 방안 △공약사업 이행을 제고 방안 △미래 도시방향 설정과

제언 △타 시군 우수사례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 실천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정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끊임 없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한 경제 구현'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는 도시·경제·문화·복지의 4개 분야, 89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종합경기장 개발과 탄소·수소·드론 3대 미래산업 육성,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 주요 공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아록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